

In brief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21 December 2017

법인세 관련 이자 및 벌과금에 대한 IFRS 해석위원회 결정

이 *In brief*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앞서 발행된 INT2017-12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면서 대체합니다.

Issue

IFRS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이하 "IC")은 법인세 관련 이자 및 벌과금에 대한 2017년 9월 안건 결정을 발표하였다.

IFRIC 23 'Uncertainty over income tax treatments'는 IAS 12 '법인세'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법인세에 적용한다. 이 해석서에서는 이자 및 벌과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관련하여 IC는 지침을 개발하여야 할지를 고려하였다. IC는 이자 및 벌과금 지침 개발에 따른 재무보고 개선 효익이 비용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결론내렸다. 따라서 지침을 개발하지 않고 안건 결정만 발표하였다.

IC는 안건 결정에서 법인세 관련 이자 및 벌과금에 IAS 12 또는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할지는 회계정책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기업이 이자 및 벌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받을 특정한 금액을 법인세로 본다면 IAS 12를 적용한다. 기업이 이자 및 벌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받을 특정한 금액에 IAS 12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에 IAS 37을 적용한다.

IC는 또한 다음에 주목하였다.

- 관련한 기업의 판단이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이 있다면, IAS 1 '재무제표 표시' 문단 122에 따라 이를 공시한다.
- 법인세 관련 이자 및 벌과금 회계처리에 IAS 12 또는 IAS 37을 적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중요하다면 IAS 12와 IAS 37의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Impact

누가 영향을 받는가?

법인세 관련 이자 및 벌과금을 지급하거나 받는 모든 기업들은 안건 결정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어떤 영향이 있는가?

IAS 12에 특정한 지침이 없으므로 법인세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기준에는 법인세 관련 이자 및 벌과금에 IAS 12 또는 IAS 37을 적용할지를 회계정책의 선택으로 결정했을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어떤 기준서를 적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이자 및 벌과금의 개별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인식, 측정 및 공시에 차이가 생기고, 법인세 관련 이자 및 벌과금을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방법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

안건 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안건 결정은 기존 지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즉시 시행된다. 안건 결정 후 곧 보고기간말이 되는 기업들은 안건 결정을 해당 보고기간말에 적용해야 할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판단에는 관련 감독당국의 의견을 고려한다.

어떻게 대응하는가?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법인세 관련 이자 및 벌과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평가하고, 기존 회계정책 및 표시를 변경하여야 할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Insight

기업은 이자와 벌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받게되는 특정 금액이 법인세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2006년 3월과 2009년 5월 해석위원회의 안건결정에서 IAS 12가 법인세를 과세소득에 기초하는 세금으로 또, '과세소득'은 총액이 아닌 순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어떤 기준서가 적용될 것인지 결정하는데에는 판단이 요구된다. 경영진은 세법의 의도와 실질을 고려하고 과세당국과의 결제 절차를 고려하여 이자와 벌과금이 별도의 항목으로 IAS 37이 적용되어야 할지, 과세당국과 일괄적인 결제의 일부로서 IAS 12를 적용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5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적절한 기준서가 회계상 모든 측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 IAS 12(와 2019년부터 시행되는 IFRIC 23)의 지침은 회계단위와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식과 측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되는 항목을 당기손익 이외의 당기법인세로 인식하는 것이나, 당기법인세자산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회계정책 등을 포함한다.
- IAS 37의 적용범위라고 결정된 금액은 그에 따라 인식 측정된다. IAS 37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자는 금융비용으로 벌과금은 영업비용(operating expense)^(*)으로 계상된다.

경영진은 그 영향이 중요할 경우 IAS 1에 따라 이자 및 벌과금에 적용된 기준서를 명확하게 공시해야 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비용 또는 영업외비용 분류를 결정해야 한다.